

## 캠퍼스 곳곳 '방치 쓰레기' 신음

### 공사 폐기물·쓰레기 등 가득 ... 당국 관리소홀 지적



▲ 자연대학 2호관 주차장 옆 공터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폐기물과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건물완공 후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캠퍼스가 훼손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자연대학 2호관 주차장 옆 공터에는 건축착공 공사를 위해 파놓았을 흙더미와 폐아스팔트(아스콘), 목재, 건축자재 등이 가득했다. 바로 옆에 세워진 '쓰

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건축 폐기물과 폐아스콘의 경우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뿐더러 처리시 매립장에 돈을 주고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터에 버려진 폐아스콘은 산책로 경관을 훼손시키며 그대로 방치

돼 있다. 또한 흙더미나 폐아스콘은 버리기 전에 잠시 방치해 둔 것이라 보기엔 봉우리가 생길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 게다가 아주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있는 폐아스콘도 있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게다가 이곳에는 흙더미, 폐아스콘뿐만 아니라 목재, 석재 등이 널부러져 있고, 지난 3월에는 한라타에 쓰러져 있던 농구대도 버려져 있었다.(본지 3월 10일자, 709호) 때문에 학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 중에는 흙더미 등 자재들을 한곳에 모아 이용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 이곳에 방치된 것 같다"며 "폐아스콘의 경우는 폐기물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기로 가득찬 산책로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도 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산책로를 찾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추석연휴를 맞아 우리대학 산책로를 찾은 김동주(23, 경북대)학생은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제주대의 산책로가 좋다"며 "하지만 산책로에서도 흰색 보이는 곳에 흙더미와 자재들이 버려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현재 교내 곳곳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보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학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학내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해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지은 기자 jien8318@cheju.ac.kr

## 2학기 수시모집 1.45대 1

### 국어교육과 8.75대 1 최고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경쟁률이 1.45대 1로 나타났다.

입학취업과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시2학기 모집마감 결과 1042명 정원에 1515명이 지원, 지난해 1.08대 1보다 조금 상승했다.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 국어교육과가 4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해 8.75대 1의 경쟁률로 보였으며,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은 3명 모집에 26명이 지원해 8.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은 2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의예과는 8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해 7.88대 1, 수학교육 4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

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디자인학과(문화조형디자인 전공)와 컴퓨터교육과는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학과는 0.11대 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아울러 정원의(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전형은 98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0.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학취업과 관계자는 "꾸준하게 실업계 고등학생을 초청해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조금 상승한 모집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미달했던 특정 과목 우수자 전형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학교장추천자 전형에 속

해 있던 사회봉사자 전형을 따로 분리한 결과 높은 지원율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모집 전형유형별 지원자는 다음과 같다.  
△ 특정 교과목우수자 421명 △ 교사추천자 341명 △ 사회봉사자 309명 △ 실업고졸신자 163명 △ 농어촌학교 136명 △ 학교장추천자 53명 △ 취업자 33명 △ 예능특기자 20명 △ 만학도 22명 △ 국가(독립)유공자 13명 △ 농어민 및 선원자녀 1명 등이다.

전형일정은 오는 27일 실기고사를 시작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다음달 26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신분확인 제대로 않고 도서대출 버젓이

### '대출한 적 없다' 불만도 ... 본인 확인절차 강화해야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시 신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서 대출시 학생증을 이용해 대여가 이뤄지는데 학생증을 통한 본인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대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서 대출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서관 인터넷 게시판에는 도서를 대출하지 않았는데도 도서가 대출했다는 내용의 글이 계속되고 있다. 글을 올린 학생은 게시판에 '책을 빌린 기억도 없고 학생

증을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 적도 없었는데, 제목도 전혀 모르는 책을 빌린 것으로 돼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이를 악용해 고가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를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를 대출함에 있어 대출인의 신원은 꼭 확인하고 있으며 담당 직원과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 아르바이트 학생에게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증의 사진이 대부분 고등학교 당시

의 사진으로 몇 년이 지난 지금 학생증의 사진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출과 반납이 사람의 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도서 대출시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신원확인도 어려워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신분 확인 절차가 학생증의 사진에 의해 이뤄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모가 비슷한 사람들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대조 등의 방법이 도입돼 보다 확실한 대출 절차가 이뤄져

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학생들의 도서 이용에 따른 태도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고가의 예술책에서 훌륭한 그림이나 필요한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찢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도서의 경우 자기만 아는 곳에 책을 숨겨 놓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도서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제주대 구성원 모두의 도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민 기자 sung@cheju.ac.kr

## L&F 남상수 회장 발전기금 기증

9. 23(목) 11:00 제주대학교 본관 회의실



## L&F 남상수 회장 발전기금 4억 기증

남상수(주)남영(L&F)회장이 지난 23일 제주대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함으로써 이제까지 총 4억원을 기부했다.

남상수 회장은 91년 대학발전기금 1억원 기부를 시작으로 92년 1억원, 2002년에 1000만원, 2003년과 2004년 개교기념일에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1억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 2억원을 더 기부하기로 약정했다.(2면에서 계속)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

## 시설부문 종합발전계획 학무회의 통과

시설부문 종합발전계획 연구위원회(위원장 김홍수, 통신공학 교수)가 마련한 '제주대학교 종합발전계획서(시설부문)'가 지난달 21일 학무회의를 통해, 회의의 통과를 남

겨놓고 있다. 종합발전계획은 '제주대 비전

21'에 제시돼 있는 교육의 다양화 체제구축,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캠퍼스 조성, 캠퍼스 정보화 구축 및 대학의 특성화, 제주형 테크노 파크 등의 구축을 위한 기반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기존 건물의 재배치 및 공간 재조정을 통해 캠퍼스

효율을 높이는 한편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생태 캠퍼스를 지향하기 위해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및 조경 공사 등 계획과 투자계획이 심의 중에 있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제주대학교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신청한 5개 과제가 전부 선정됨으로써 전국 2위 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한편, 올해부터 매년 76억5천만원씩 앞으로 5년간 총 382억 2천여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금 대부분이 장학금과 해외연수,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어학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꿈을, 국립 제주대학교가 앞장서서 실현 하였습니다.

※ 5개 누리(NURI)사업단이 1년간 학생들을 위해 펼치는 지원내용

	장학금	해외연수	국내연수 실습	자격증 취득	외국어 교육	기타
아열대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	676,200,000	156,450,000	35,000,000	24,680,000	13,440,000	332,200,000
첨단관광 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	280,000,000		57,000,000	30,000,000	55,300,000	570,000,000
친환경해양산업 뉴프론 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BK21 사업단)	134,600,000	71,000,000	24,000,000	34,000,000	16,000,000	747,500,000
청정에너지 특화 인력 양성사업	598,007,000	200,000,000	25,000,000	130,000,000	27,000,000	
청정에너지 특화 인력 양성사업	326,500,000	93,000,000	54,000,000	19,200,000	27,000,000	49,000,000
제주국제자유도시 범무 서비스 인력양성사업	90,000,000	108,000,000	12,000,000		54,000,000	25,800,000

■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학년도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학 특성화 부문 '최우수'	발전전략 및 비전영역 '우수'
대학경영 및 재정영역 '우수'	사범대학 '종합우수' 평가

■ 제 39회 공인회계사 시험(9월9일 발표)에 9명이 합격했습니다.

고영준, 강석희, 조진용 (이상 경영학과)
김봉현, 고행선, 고영보, 김현수, 진현우, 강경환 (이상 회계학과)

지금까지 제주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주대학교 대학사 자료수집 합니다.

종이책 / 간행물, 팸플렛, 학위증, 각종 신분증, 상장증  
사진 및 미디어 자료 / 앨범, 각종 행사 및 활동사진, 캠퍼스사진, 필름 등  
기념품 및 비품 / 마크(교표), 상패, 문진, 행사기념품, 패들렛, 뱃지 등  
문의: 제주대학교 총무과(069-754-2073)



## 사설

## 공공의식은 학생의 최고 덕목

우리사회의 갖가지 잘못된 관습·관행에 대한 '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서·준법·근검절약 등 공공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애써 이룩한 일련의 개혁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기물에 대한 주인의식은 대학생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중앙도서관 활용실태를 보자.

책 여기저기에 줄이 여러번 그어져 있는 것은 기본이고 잡지, 논문 등은 책 중간이 찢어져 있다. 책세형으로 발간된 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찢어가는 바람에 찢을 건넌 건도 많다. 정기간행물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제집의 피해는 더하다. 책에 나서기 되었거나 답안지는 아예 찢어져 없다. 책자와 분리된 어학 테이프 자료도 찢기 힘들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미리 책을 산더미처럼 가져가 쌓아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 다른 이용자가 책 읽을 기회를 뺏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음 이용자들은 아랑곳 않고 책에 줄을 긋고 찢어가는 행동은 실종된 대학생들의 공공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함께 열람하는 도서관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온통 나서로 치장돼 있는 책상은 이기주의적 행태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앙도서관 자료검색실과 전산정보원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마우스 같은 컴퓨터 기자재도 없애지기 일쑤다. 이러다보니 기물이 제대로 남아날 리가 없다. 모두가 이용하는 물건을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가짐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이 바로 공공기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버릇인데,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그 악습의 현상은 캠퍼스 곳곳에서 눈에 띄어 '공공기물은 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다.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휴일날 대학 캠퍼스는 도민들의 각종 행사로 언

제나 만원이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빠져나간 후 남은 것은 온통 쓰레기 뿐이다. 운동장, 잔디밭 곳곳은 물론 대학 건물 안까지 쓰레기로 물살을 앓는다. 우리의 공공의식은 왜 갈수록 이 모양인지 우리 모두, 특히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쓰레기 속에 양심을 버리고 간 이용객들은 내년에도 뻔뻔스럽게 다시 이곳 캠퍼스를 찾을 것이다.

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공공의식 부재의 책임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대학사회의 어른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자기책임 영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도 어떤 개선행위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사회관습으로 성립시켜야 할 도덕률을 개인의 행위규칙으로 만들고 이를 사실상 강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성립돼 온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대학사회는 사회적 행위규칙 준수에 너무 많은 유예와 묵인·묵살의 과정을 거쳐왔다. 규칙을 공고히 해야 할 제도의 권위가 여기에서 훼손되고 나태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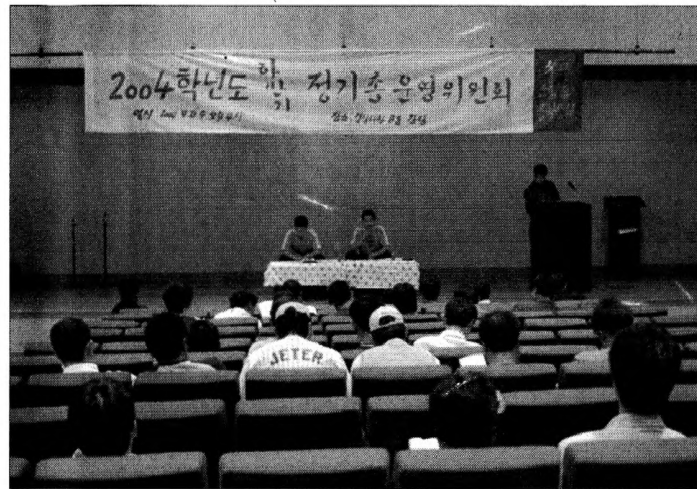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식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만 강해지고 공공의식은 파문쳐 버렸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같은 현상은 모두 교육 부재가 물고 온 결과다. 황금만능주의와 점수위주의 교육이 대학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식 교육은 발을 붙일 틈이 없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르는 공공의식 캠페인을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고 공공의식은 물론 도덕지수를 높이는 교육을 보다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대학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파기하면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정면 모른단 말인가.

## 2004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 개최

## '동아리 자치권',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등 현안 보고



▲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가 지난날 22일 경성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운영위에서는 보고안건과 논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총운영위원회(위원장 고성표 무역 4, 이하 총운영위)가 지난날 22일 재적 87명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성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총운영위는 ▲보고안건 ▲일반 아라 요구안관련 본부 협상과 진행 과정 처리 ▲후생복지기금 집행 과정과 집행예산 보고 ▲상반기 정기 총운영위 공개질서 답변 보고 ▲등록금 투쟁을 위한 일일호프 수입

발전기금은 2004학년도 기성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일호프 지원 ▲동아리 및 과 행사 학생봉사 및 학술활동 행사 등에 차량지원 계획,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실시되는 개별적인 놀이문화 행사지원 곤란 ▲교내외 학교 행사 30인 이상 참가시 의약품 지급 ▲동아리 행사 중 사고 시 치료비 총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교통사고나 폭력상해로 인한 경우 제외, 학생의료금제 이용 ▲제2학생회관 오는 2007년~2010년 기간 중 추진 등을 설명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어서도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투자해 장애학생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대 학과방에 대해서는 시설공간 부족으로 인해 학과방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학과방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학과방설치를 요구했었으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계속 학생회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단과대 우선사업 변경권한에 대한 의견, 사범대 휴식 공간에 대한 의견, 학내 수익사업에 대한 의견, 도서관 좌석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 논의안건에서는 김태경(해양학과 3)회장이 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정문 비가림설치, 한라터 바닥공사 등의 학생 후생복지기금 예정내에 대해 일만아라학우들의 공개 설문 조사를 요구하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위)의 적극 검토해 각 단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생복지기금의 중위 위임 찬반에 대한 안건도 찬반 투표로 통과됐다.

기타안건에서 정진학(해양산업4)회장은 "오는 12월에 실시될 총장선거 선거권을 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고성표 위원장은 "이 문제는 중위와 각학과 회장 모두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단대운영위를 통해 많은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학내 주차장 시설 부족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고성표 위원장은 "교직원과 학생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과 관련, 당국에 항의를 하고 있고, 주차장확충을 위해 학교측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캠퍼스 환경위원회 예산확충이 되고 있어 추후 주차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대학성적 관리 위해 학점포기제 도입 바람직

## 아직 실무검토 안돼 ... 취업 성적관리용 전략 우려도

최근 한양대, 청주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생의 학점관리를 돕는 학교의 제도적 방안으로 '학점포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점포기제는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학생의 자의로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수강신청제도의 맹점을 보완한다.

수강신청제도는 수업료를 받는 도중 유예기간을 뒤 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하거나(수강포기제), 학점을 통보받은 후에도 재이수를 통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최소신청학점(15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17학점을 신청한 학생은 3점짜리 과목의 수강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폐강된 과목은 대체과목을 통해 재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성적을 올릴 방안이 없다.

그밖에도 기존의 제도는 두 학기 중 한번만 진행되는 과목은 졸업할 땐 학생들이 한 학기를 더 다녀야만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며, 전체 평점을 올리려면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수업도 재이수를 하는 방법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학점포기제는 졸업신청학점을 초과한 경우, 성적이 낮은 과목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 과목이 없어진 경우나, 성적은 나쁘지만 재차 듣고 싶지 않은 경우 재수강 없이도 평점을 올릴 수 있게 한다.

학점포기제도는 각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해놓고 있다.

숙명여대의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이 폐강되거나 두 학기중 한번만

진행되는 과목처럼 재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학기마다 6학점 이내에서 포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대와 같이 허용과목의 범위를 넓혀 전체 교과목을 대상으로 졸업년도에만 최고 5학점까지 취득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박지숙(간호 2) 학생은 "전공과는 상관없이 받고 싶은 수업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은 전공학생들만큼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들어 수강신청할 때 고민한 적이 있다"며 "학점포기제가 시행되면 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대평가의 의미를 훼손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생은 "취업시 학점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학생의 능력과 함께 성실함을 보는 것인데 학점포기제를 도입한 대학의 졸업생 학점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나 타대학의 경우를 보면, 폐강된 과목 중 대체과목이 있는 경우는 포기 신청을 못하도록 하거나,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포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학도 학점포기를 5학점 이내로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과격적인 성적상승이 어렵도록 하고 있다.

서병재 학사관리과장은 "아직까지 학점포기제 도입 요구가 제기된 바가 없어 실무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장점이 많이 드러나면 검토 후 도입할 수도 있다"며 학점포기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

## 1면에 이어

기부한 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과 교수연구기금,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주)남영&F는 1957년 창립해 여성 숙곳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는 여성 단체 전문기

업이다. 남 회장은 제주와는 별다른 연고 없이 오직 후학 양성을 위해 제주대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대학교에 기금을 쾌척해 준 이유를 "대학생들의 학문정진과 교수들이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밝힌 남영 관계자는 "대학생들은

미래의 주역인 만큼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 사회의 한 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후학들의 학문정진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호근기자 journalist@cheju.ac.kr

## 제주출신 재일교포의 대학 사랑

## 관서도민협회, 33년 동안 도서 6천여권 전달



▲ 양철사 회장이 도서기금 기증서를 부만근 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사카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재일교포도민인 관서제주도민협회(회장 양철사)의 제주도 사랑이 33년간 이어져 오면서 제주대에 사랑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

지난 1971년 2월 25일 도서 139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1974년부터 매년 제주대에 책을

전달해 1993년까지 4815권을 기증했다. 1994년부터는 도서기금으로 출연하면서 전통 있는 사업으로서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청년회는 올해 역시 지난 1일 약 375만원(36만엔)을 기부해 현재까지 도서기금액만 6560만원(624만8502엔)을 기부했고 도서

4815권을 기증했다. 이로써 2002년도까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와 도서기금으로 구입한 책을 합치면 총 5981권에 이른다.

제주대 발전을 기원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역발전 보탬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기부된 기금은 계속 도서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본관 2층 회의실에서 가진 도서기금 기증식에는 양 회장과 회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회장이 부만근 총장에게 기금을 직접 전달했다.

양 회장은 "고향의 대지를 밟으며 이 사업을 추진해 기쁘다"고 소감을 말하며 "이국땅이지만 제주를 신 선루배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꾸준한 고향 사랑을 내비쳤다.

양호근기자 journalist@cheju.ac.kr

## 2학기 교류수학생 21명 파견

## 4개국 7개 대학 ... 이수후 학점인정

2학기 교류수학생 21명이 나가 사기대학 및 류큐대학을 비롯한 4개국 7개 대학에 지난날 1일 시작으로 모두 파견됐다.

파견된 학생들은 대학간 학술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따라 1년 동안 교류학생으로 수학하게 된다.

파견국 및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본 나가사키 대학 부영미(영어영문 3), 일본 류큐대학 박희진(통신컴퓨터공학 4) ▲대만국립중양대학 남지희(중어중문 3), 김형은(중어중문 3), 이선희(중어중문 3), 양진영(중어중문 3), 김아름(중어중문 3), 김미래(중어중문 3), 양은선(중어중문 3), 김형록(정치외교 4),

이오근(정치외교 3) ▲중국 남경대학 김진현(중어중문 4) ▲일본 가고시마대학 강민희(일어일본 3), 김미리(일어일본 3), 부혜진(교육대학원) ▲오사카 경제대학 홍민정(관광경영 3), 김희현(경제학과 2) ▲중국 천진대경대학 이지원(무역 3), 한정호(경제 3), 강태준(경영 3)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

## 양호근 기자가 만나다

## 한글사랑 국어교육과 김태곤 교수



## “한글사랑이 곧 나라사랑”

오는 9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58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우리의 민족어를 반포한 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족의 자부심 한글날을 맞아 민족 언어 한글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태곤(국어교육과) 교수를 만났다.

김태곤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국내 외국인 한글 교육'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그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 자체로 외국인들을 위해 한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학기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강의가 정규과정으로 포함돼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무화시켜 외국인들이 한글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김 교수는 "한글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재외 동포에 대한 한글 교육과 한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어를 잊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동포들과 사용하지 않는 동포들을 비교했을 때 그 사상과 주체성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통신언어로 인해 한글이 많이 퇴색하고 변모하고 있다. 통신언어가 일종의 언어의 변화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언어 변화라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춰 서서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인데 언어를 사용하는 한 시대 속에서도 통신언어로 인해 세대간 의사소통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언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 나라의 민족어의 존재는 그 국가의 존재와도 상통한다"고 말하는 그는 민족어를 예로 들며 "만주족은 만주어(여진어)를 사용했었지만 중국어를 쓰면서 중국민족으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족은 한글과 중국어를 같이 사용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언어가 민족 존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했다.

따라서 그는 여기 제주에서부터 한글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제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한글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언어를 알면 그 나라에 대해 더욱 친근감을 갖게 되므로 우리대학이 적극 나서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외국인에 대한 한글 교육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한글은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민족어로서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며 "신속성에 의한 통신언어로 축약적인 형태로 변했지만 제대로 된 언어 사용은 일종의 습관이기에 때문에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기 대의원총회 정족수 부족 '무산'

## '학생대표 의식 결여' 심각 ... 72개 중 18개 학과만 참석



▲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3일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족수 216명 중 33명만이 참여해 이날 총회는 결국 무산됐다.

2004학년도 하반기 정기 대의원총회(의장 김승현 해양토목공학)가 지난달 23일 인문대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

산됐다. 대의원 상·하반기에 대의원총회 증심으로 대의원(각 학과 대표)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지는 대의원 총회는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 개의 정족수 216명 중 33명만이 참석해 과반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참석한 학과는 인문대 사회학과, 법정대 행정학과, 경상대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경영학과, 농생대 식물자원학과, 원예생명과학부, 해양대 해양토목학과, 해양학과, 자연대 생명과학과, 전산통계학과, 체육학과, 가정관리학과, 의예과, 공과대 전자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의과대 의학과, 야간 관광경영학과로 총 72개 학과 중 18개 학과만 참석해 학과대표들의 학생대표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학과 대표들만 참석한 가운데 당초 예정됐던 보고안전과 의결안건 중 보고안전 '충원위원회 결과보고, 상반기감사보고, 대의원회 일만아라 요구안 사용내역'만이 이뤄졌다. 의결안건인 '상반기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데 대해 김승현 의장은 "논의 안전에서 상반기에는 예산안 관련 안건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이번 하반기에는 관심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부분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각 학생회끼리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며 "학내에서는 국회와 같은 대의원총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양호근 기자 [journlist@cheju.ac.kr](mailto:journlist@cheju.ac.kr)

# 2004학년도 연구과제 6억여권 지원 받아

##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과학재단 연구지원 선정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이 주최한 2004학년도 연구과제 공모에서 제주대가 각각 2억7581만2000원과 3억3000만원 등 총 6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연구과제는 2004년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 2004년도 기초과학연구 신규과제, 2004년도 특정기초연구 과제, 우수여성과학자 신규과제이다. 다음은 연구과제와 지원주체, 선정과제다. ▲2004년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김희철(무역학과)교수 - 일제하 제주지역의 기업가 연구 △김원보(한영과) - 제주방언 분절음 및 초분절음의 음향 음성학적 분석 및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4년도 기초과학연구 신규과제, 한국과학재단 지원 △오문유(생명과학과)교수 - 제주 고대 포유동물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 ▲2004년도 특정기초연구 과제, 한국과학재단 지원 △김경연(전자공학)교수 - 임피던스 영상 복원을 이용한 공정 감시 기술 개발

△김태권(수의학과)교수 - 퇴행성 뇌질환에서 신경계 조직의 반응과 조직 재생 기전 연구 △정승달(정보수학과)교수 - Basic Dirac 연산자 횡단적 Twistor 연산자에 관한 연구 ▲우수여성과학자 신규과제, 한국과학재단 지원 △지영훈(수의학과) - 티로신 분해효소인 티로신 분해효소의 신경 병리학적 연구 △현진원(의학과) - 사람 백혈구 세포에 대한 인상 세포 내 대사체의 아포토시스 유도 및 세포 주기 억제 및 그 신호 전달에 관한 기전 연구 △조수현(의학과) - 항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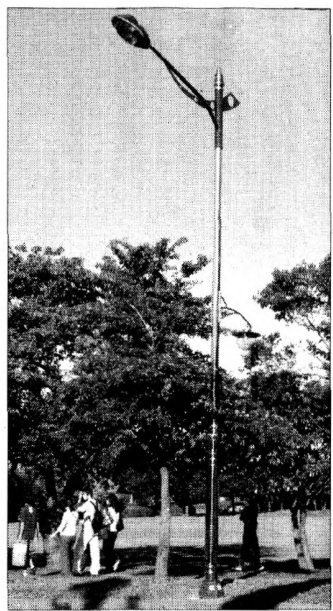
병 약물의 심장 세포의 수축력, 막전압, 이온 통로 기능에 대한 효과 △오순자(기초과학연구) - 중금속오염이 식물의 엽록소형광과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 개발 △강신해(의학과) - 인슐린수용체의 티로신 인산화효소활성 비의존적 신호전달계가 포도당대사 및 세포사멸 억제에 미치는 영향 △나수연(건축학부) - 환경친화적 리모델링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원지애 기자 [fate0204@cheju.ac.kr](mailto:fate0204@cheju.ac.kr)

# 노후 가로등 연말까지 교체 예산부족으로 전체 교체는 힘들 듯

학내 가로등이 연해에 의해 부식, 위험예방으로 지난 8월 26일 가로등 설치업체와 계약을 맺고 8월 30일부터 가로등 교체에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따라서 가로등 한 본의 가격은 180만원으로 총 사업비 217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로등 교체는 우선적으로 외부인의 왕래가 잦은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에 따라 교체범위를 넓혀

갈 예정이다. 또 가로등의 높이는 이전의 6m에서 8m로 높여 나무에 가려지지 않게 했으며 보행로 쪽은 4m로 낮게 해 어두웠던 인도를 밝힐 수 있게 했다. 디자인에서는 본 위부분을 제주대 이미지색인 파란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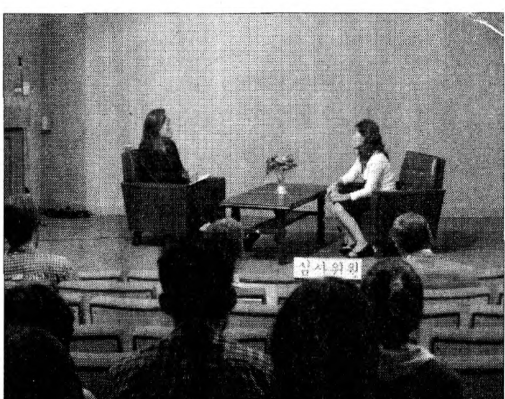
처리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부식된 가로등을 완전 교체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사실상 고층우씨는 "부식이 심한 가로등은 폐기하고, 사용가능한 것은 옮기면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만 교체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부식된 가로등을 완전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양호근 기자 [journlist@cheju.ac.kr](mailto:journlist@cheju.ac.kr)



▲ 진입로의 교체된 가로등

# 영어말하기대회, 금상에 강현주양

## 고등부는 송한님양 수상



▲ 공과대 C동 세미나실 열린 제25회 영어말하기대회

제25회 영어말하기대회 본선이 지난 1일 공과대 C동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언론·출판전(주한 김진영 사회학과 교수) 영자신문 The Islander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학부, 고등부로 나뉘어 1부-생활영

어, 2부-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학부 △ 금상-강현주(영어영문 4) △ 은상-김민건(관광경영 3) △ 동상-조혜란(관광경영 2) △ 장려-오상철(방송통신대 관광 1), 김은정(경영 3) ▲ 고등부 △ 금상-송한님(의국어고 1) △ 은상-이재준(대기고 1) △ 동상-김신혜(신성여고 2) △ 장려-김원수(사대부고 2), 장종윤(사대부고 2)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mailto:jung@cheju.ac.kr)

# "아날로그 세대 정리해고는 시대 흐름을 감지 못한 탓"



▲ 최고경영자과정동문초청 특별강의

경영대학원(원장 허항진 관광경영교수)은 지난달 23일 경상대학 2호관 세미나실에서 '인재경영과 뉴리더십', '왜 제주자치도인가'를 주제로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를 열었다. 첫 번째로 나선 윤은기 서울대학교 화종합대학원 부총장 겸 (주)IBS컨설팅컴퍼니 회장은 '인재경영과 뉴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40대 이상의 아날로그 세대가 대거 정리해고되고 있는 것은 학력, 경력,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20~30대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속도의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김국주 제주은행장은 '왜 제주자치도인가' 발표에서 "길거리 쓰레기를 없애고 주정차 위반 철저 단속, 주택가 이면도로 인도 설치 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제주자치도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mailto:song@cheju.ac.kr)

# 돌하르방

## 열정적인 도전정신 아쉬워

4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유력 언론사에 입사한 한 선배가 내려왔다. 그 선배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해 있는 우리를 꼬집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보는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제주대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처놓은 경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 내재화되어 있는 환경들, 평범한 속에서 험난한 다른 도전을 꺼려한다. 높은 이상을 향하기보다 현실에 만족해 편한 생활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요즘 아무리 취업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꿈이 있다면 밑바닥부터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대학 학생들은 그런 도전의식이 많이 부족하고 정보보다 더욱 용기가 결핍해 있다. 본지가 연재하고 있는 '나는 달린다-제대인 인터뷰'를 읽다보면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에 내 자신에게 부끄러

워질 때가 많다. 지난해 9월 제대인 인터뷰 5번째 주인공 현상민(삼성 무선사업부 책임연구원)씨는 '2003년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전공한 디자인을 하는 곳이 아니라 컨셉을 짜거나 홍보를 담당하는 팀에 파견됐다. 다른 사람들은 '좌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그는 "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며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고 애쓰다든지 눈치를 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삶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항상 새로운 환경을 즐겼다. 결국 많은 사람을 접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들이 바탕이 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컨셉을 제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젊을 때 많은 것을 보고 겪어라. 그리고 항상 즐겁고 밝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긍정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실례에 두려워하지 말고 젊은 시절 무슨 일이든 부딪혀 보라고 당부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응해줬던 모든 선배들은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전정신'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선화(제주 MBC 편성제작국/라디오제작부장)씨는 "대학시절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생을 즐긴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너무 일찍 인생의 마지막을 걷는 것 같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만이 '느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시절에서 '느림'은 인생의 마지막 답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제 4학년 2학기 취업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 중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다른 이들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 평범하고 관공리 대학생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이단자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어디가서든 개척적인 제대인이 돼야 할 것이다. 김현주 문화부장

# (주)다음과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체결

## 산학협력단, 지역마케팅 발판 삼아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단(단장 김부찬)과 (주)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이 지난달 13일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은 지난 8월 2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이다. 지역혁신을 이루는 지역의 산업체, 학교 등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과 산학 디지털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활용해 지역적 마케팅을 제시,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 사업은 (주)다음의 'Digital Island Jeju Project'로 3년동안 이뤄지며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정부지자체,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총 70여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주)다음을 비롯한 8개 업체와 제주대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 중소기업종합센터, 제주서비스산업원, 제주도가 참여한다. 제주대는 10개 핵심사업 중 관광콘텐츠, 모바일콘텐츠, e-Learning, 인력양성 등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주)다음은 제주대에 지난달 1일부터 다음해 6

월 30일까지 10개월 간 총 2억2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공과대 첨단기술 연구소장인 이광민(전자공학)교수가 사업 수행 책임을 맡는다. 이 교수는 "e-Learning과 인력양성을 통해 미취업 졸업생 및 취업한 인력에 대한 추가교육과 도민대 서비스 등의 교육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광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등을 비롯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주 기자 [dmswn@cheju.ac.kr](mailto:dmswn@cheju.ac.kr)

#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 공식기구 인정 앞뒤

## 특산식물·해외자원 식물 유전자 서비스

제주지역 자생 동·식물과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을 활용한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 (은행장 이선주 화학과 교수)이 정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의회 인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연구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열대·열대생물유전자은행은 지난 2002년 한국과학재단 특수연구·열대생물유전자은행' (은행장 이선주 화학과 교수)이 정식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평의회 인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연구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주 은행장은 "아직 기구로 인정받은 게 아니어서 그동안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며 "대학평의회 인가절차를 거쳐 정식기관이 된다면 해외 연구·학술기관과의 교류협정이 가능해 돼 영역 확대 및 생산성 증대 등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mailto:jung@cheju.ac.kr)

# "이웃나라 알자" 미니포럼 열려

## 사회과학연구소, 월례행사로 추진

사회과학연구소(소장 이경원)는 정학과 교수가 교수회관에서 지난달 22일 일본문화 체험기를 주제로 미니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웃나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달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경영철정 행정부지사의 '제주지역전략산업중IT산업발전전략',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

이번 월례포럼을 시작하면서 이경원 소장은 "제주대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제주도의 거점대학으로서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달에는 중국에서 후진파가 국가주석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니포럼을 열 계획이다. 양호근 기자 [journlist@cheju.ac.kr](mailto:journlist@cheju.ac.kr)

# "창의력·독창력 있는 인재 절실"

## 전자공학과 주최, 제주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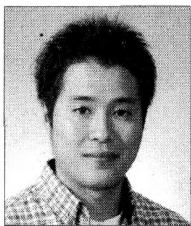
전자공학과 학생회(회장 김용범)는 지난달 23일 공과대학 3호관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IT산업발전을 위한 초청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경영철정 행정부지사의 '제주지역전략산업중IT산업발전전략',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

의 '제주IT산업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 발표가 이뤄졌다. 김영철 전 행정부지사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이전, 제주텔레텍스 시범도시구축, IT협동연구센터 제주본소설립, 지방대학혁신전략 강화사업(NURI) 등의 구현을 위해

서는 창의력·독창력 있는 IT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개발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호 JS소프트 대표이사는 "앞으로 5년간 제주도는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그 변화세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자신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cheju.ac.kr](mailto:song@cheju.ac.kr)



## 아라함성



김주연(정치외교 3)

## 학생회비 제대로 걷자

“학생회비를 뭣 하러 내냐 돈 아깝게”, “난 3학년 이후로 내지 않기로 했어”, “정말 내 돈도 되는 거예요?” 얼마 전 과학우들과 과방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학생회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왜 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학생회비는 비록 60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약 1만 명의 돈이 모이면 무려 6000만원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왜 이러한 학생회비가 학우들에게만 한 켜에 비쳐지고 있고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있을까?

평소에도 학생회비에 많은 의구심을 품어왔던 필자는 우선 학생회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감사한다는 대의원을 찾아갔다. 찾아가보니 지난 1학기 등록 결과 제주대학교 총 등록자 9813명 중 6918명(70.5%)의 학우들만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고지서와 접해져 나오는 학생회비 고지서를 찢고 휴지통에 버려왔던 것이다. 그래서 약 1800만원 상당의 돈이 찢겨진 고지서와 함께 사라진 셈이다.

그렇다면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가 이렇게 외면당한 이유는 무엇

일까? 이는 우선 학교 측이 학생회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인 줄로만 알았던 1, 2학년 학우들도 3학년쯤 되면 주위로부터 학생회비를 내 내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듣고는 학생회비를 내려 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회비 납부자의 80% 이상이 1, 2학년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또한 문제다. 어찌 보면 학생회비는 학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어떠한 조직체에서도 회비를 내지 않고선 그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가볍게 여겨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비 내기를 간과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대학생으로서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걸려진 돈이 모든 학생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다. 학생회비는 각 단대 학생회 및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곧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30% 가량의 학우들도 버젓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니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이 안 좋아 질 수밖에 없다. 어찌 일부 학생들이 낸 돈만을 가

지고 공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단 말인가. 학생회비를 낸 학우들과 그렇지 못한 학우들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모든 게 확실해야 하는 요즘 사회에서 이 문제는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슨 이유에선지 몰라도 학교당국은 학생회비 다루기를 많이 꺼려해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최소한 학우들에게 학생회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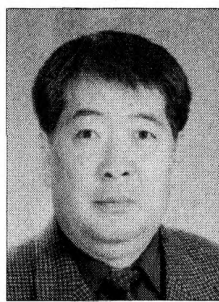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납부하지 않은 학우들에 대해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든지, 학교에서 주는 일부 혜택을 제한하든지 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학생회비를 낸 학우들과 그렇지 않은 학우들 간의 차별성을 두어야 함도 마땅하다고 본다.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모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학우들 또한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학생 본연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교와 학우들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대학은 한 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라함성’은 아라인들의 ‘칼럼’이며 게재된 의견에 대한 반론은 우선해서 실어드립니다.

## 여론

## ■ 나는 달린다-제대인 인터뷰(28) ■



양익철 (75년 수학교육 졸업) 안산 교육청 장학관

## 넓은 세상을 보고 꿈을 펼쳐라

- 대학시절은 어땠는지.

“전공은 수학교육과지만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정환경이 어려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칼리오페’라는 동아리를 창단했으며 교육방송국 국장생활을 2년했다. 또한 제주대 합창단을 3회 지휘를 했고 ‘하모니코프’에서 테너 활동 등을 했다.

그 당시에는 취미 활동이었지만 교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수학은 학생들이 지루하기 쉽기 때문에 수업 중간 중간에 피아노로 재즈를 쳐주면서 학생들의 지루함을 달래줬다.”

- 교육환경에 개선점이 있다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남평등 등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도 해외 대학과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어 그들의 교육을 배우고 문화를 익혀 세계화 지수를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개선만 한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수준에 따라서 변화해야 하고 개선돼야 한다. 경제 수준은

얼약한데 교육환경만 높여라 한다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된다.”

- 현재 사범대와 교육대학의 통합이 구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차교육과정은 초등과 중·고 등의 개념이 없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보면 초등과 중·고등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문화나 교육환경을 보고 배워서 좋은 점은 우리 교육에 맞게 개선해 도입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고 있다. 또 이러한 연구와 경험들을 가지고 후에 제주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

-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요즘은 컴퓨터에 모든 정보나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아 수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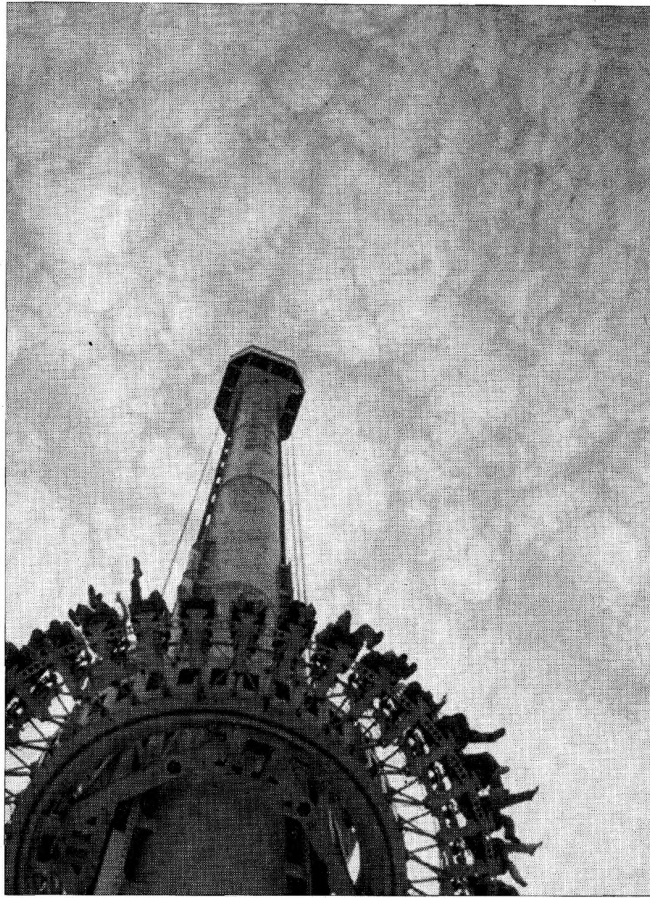
“제주도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요즘 취업률이 낮다고 하지만 제주도를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선생님이나 의사, 공무원 같이 우리가 아는 흔한 직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는 일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넓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다.”

장혜린 기자 ho44@cheju.ac.kr

## 〈 주요 약력 〉

1951년 서귀포 출생  
1970년 오현고등학교 졸업  
1975년 제주대 수학교육 졸업  
1978년 연세대 대학원 졸업  
1994년 포천교육청 장학사  
1995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1999년 수성고등학교 교감  
2002년 초지고등학교 교감  
2004년 안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독자, 세상을 품다



## 자유로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 하면서도 위험을 원한다. 서울 롯데월드에서.

양훈모(동양어문 1)

## ◆ 독자 참여 마당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본지에 싣고 있습니다. 자유주제로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기다립니다. 덧붙여 독자 여러분의 기사에 대한 쓴소리와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도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치: 본관 3층 제주대신문사 편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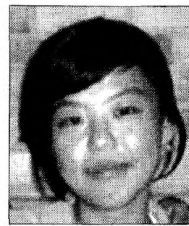
▲ FAX: 756-2204, 전화(☎ 754-2279)

▲ 인터넷 사이트 (http://cnpupress.com, mail: press.cheju.ac.kr)

원고 또는 사진을 보내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므로, 이름, 학과 및 게재번호를 꼭 기입하십시오.

## 현장에서

## 거리공연 관객의 목마름을 채우자



김정미(문화부) 기자

‘거리문화를 살리자’라는 취지아래 테러 J(Terror Jeju) 공연기획의 주관으로 시작된 ‘머리의 꽃을’ 거리예술제가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마임, 라이브공연, 판소리, 소리극 뿐만 아니라 제주 4·3 이미지를 형상화한 동상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들로 구성돼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색다른 일정으로 관객들을 즐겁게 하는 ‘머리에 꽃을’ 예술제는 도내 유일한 거리예술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커다란 무대가 아닌 일상적 공간인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관객이 된다.

“처음 공연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의 참여가 아주 저조 했어요. 관심은 있어 보이는데 거리공연 자체가 어색했는지 멀리서 지켜보지만 하더라고요.”

거리예술제를 주관하는 테러 J 박수현(기획팀)씨의 말처럼 거리공연은 소비를 자극하는 거리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문화였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은 공연 참여에 주저했

고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거듭된 거리공연에 조금씩 익숙해진 것일까, 사람들은 공연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공연은 작년보다는 많이 활성화 된 공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객이 되어 합창도 지르고 박수도 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해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박수현씨의 말은 거리문화의 꽃을 피우려는 많은 이들의 소망이 조금씩 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제주도의 대표적 거리공연인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가 일년에 한번 개최됨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고 활발한 거리공연이 필요하

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머리에 꽃을’ 거리예술제 외에는 이렇다할 거리공연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고 그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생활 속 거리문화로 다가서기 위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하고 빈번한 거리공연의 기획과 활성화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매일 마주치면 지겨운 것처럼 각각의 거리에서 각각의 공연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그 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특별한 공간으로서 거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보이는 관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

소위 ‘문화의 황무지’라 불리는 제주도에서 거리공연의 활성화는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거칠어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고된 작업인가. 하지만 판과 눈물 뒤에는 풍성한 곡식의 수확이라는 보람이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 거리공연이 문화적 황무지를 헤치고 ‘거리문화의 정착’이라는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멀다. 좀 더 다양한 거리공연을 만들어야 할뿐 아니라 일회성 공연이 되지 않도록 몰아야 한다. 거리공연 관객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노력이 이뤄진다면 제주도는 온 전역을 문화의 꽃으로 넘실되게 하리라 많은 이들의 바람은 현실이 될 것이다.

## 출연 학생

## 남 배려해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요즘, 쌀쌀해진 바람이 코 끝을 스친다. 하지만 이런 쌀쌀한 바람보다 더 내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있어 그 냄새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아직 1학년이라 대부분의 수업을 교양동에서 받는데 이곳에는 건물 전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그 짧은 시간 내에도 담배 냄새가 온몸에 배고,

심지어 연기로 숨을 못 쉴 경우도 많다.

실제 교양동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어떤 남학생이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웠다. 그 뒤에 있던 난 당연히 담배 연기를 맡게 됐고, 난 담배 연기가 너무 싫어 남학생을 앞질러 지나갔다. 그런데 다른 곳에 서도 여러 남학생들이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학생들 앞엔 연기가 자욱했고, 그곳을 지나가면 많은 여학생들이 얼굴을 찡푸리거나 손으로 담배연기를 내저으며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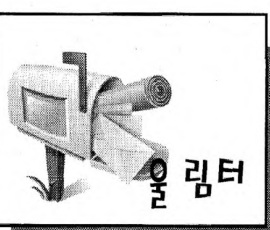
이런 광경을 지켜볼 때면 난 항상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자유를 중

까지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마다 흡연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을 조금만 더 배려하여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흡연을 삼가했으면 한다.

이런 문제는 학교 측에서도 재학생 흡연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를 구분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의 캠퍼스가 더 이상 담배 연기로 얼룩진 곳이 아닌 앞으로는 더욱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거닐 수 있는 캠퍼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혜(사회과학 1)



## 캠퍼스 곳곳에

## 이름을 달자

대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필자는 아직 대학생활에 대해 민족이라

는 단어보다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제주대의 모습이라도 알고자 친구와 두루 학교 주변을 돌아다녀 보곤 하는데, 항상 대학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곤 한다.

특히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보이는 대학의 전경과 바다를 바라볼 때나 학생회관 옥상에 서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벚꽃이 만발하여 그림과 같은 등교 길을 걸을 때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곤 한다.

하루는 한창 감상에 젖어 주위를 구경하고 있는데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보느냐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 때, 문득 떠오른 것이 친구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은

하나뿐이기에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고 쳐다봤다는 것이다.

마치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처럼, ‘어진 왕자’에서 여우의 이름과 관계에 대한 조언처럼 말이다. 그리고 문득 ‘왜 제주대의 아름다운 곳들에는 이름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곳곳마다 특별한 이름이 주어졌다면 오르기 전부터 겁먹는 중앙도서관 오르막길의 108계 계단도 조금 더 즐거울 계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정대학 앞의 잔디밭을 지칭하는 ‘하외박물관’은 넓은 장소란 뜻의 ‘너른장’이란 이름을 지어 줬다면 전시는 작품에도 더욱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고 단

순히 대학 안에 가장 큰 도서관이라는 지칭일 뿐인 ‘중앙도서관’도 고유한 이름을 붙여준다면 도서관이 딱딱하게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과 반박이는 아이디어가 모아진다면 일만 아라인의 보금자리인 대학이 더 정겹고 생기가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학교를 만들어 나갈 때 좀 더 나은 학교가 우리 앞에 자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대학 캠퍼스 내에 아름다운 장소와 건물에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씩 찍히어져 더 아름다워지는 학교를 소망해본다.

정영윤(해양과학 1)



## ◆ 누리사업-④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

## ‘청정에너지 시대’ 개막에 학생들 열 올린다

## 누리사업 선정으로 풍력 등 청정에너지 집중연구



▲ 북제주군 한림읍 월령리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단장 허종철,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교수)’이 소형 누리사업(NURI,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소형 누리사업은 오는 2009년 6월까지 진행되며 5년간 연간 국고 지원금 910만원씩 총 45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 사업의 필요성

제주도는 풍력,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의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주대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관련 교수진이 구성돼 있어 이에 대한 특화된 인력양성의 조건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대와 제주도는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들 지역 내에 흡수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공학), NT(나노공학) 등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2010년까지 ET 인력 시장의 수요가장이 여유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대가 추진하는 사업분야의 인력 수요 전망은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사업 참여 대학 및 기관

제주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형 누리사업’에는 현재 제주관광대학(이하, 관광대)이 협력대학으로 동참하고 있다. 참여인원은 총 568명의 학생과 27명의 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제주대 기계에너지

지생산공학부와 청정 화학공학과(식품생명, 청정화학공학과)에서 교원 22명, 학사과정 447명, 석사과정 22명, 박사과정 4명을 포함 총 495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관광대는 메카트로닉스계열에서 교원 5명, 전문학사과정 95명으로 총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부 참여 기관과 기업은 제주도, 제주시, (주)효성, STX엔진주식회사, (주)한국중부발전, (주)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포함돼 있다.

## ▲ 세부 사업 내용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의 향후 5년간 이뤄질 사업은 ‘우수인력 유치 및 취업 향상 프로그램’, ‘청정에너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 ‘산·학·연·관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비를 살펴보면 △ 우수인력 유치 및 취업 향상 프로그램(다양한 장학사업,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학생복지 지원사업, 산업체 취업률 향상 사업, 청정에너지 사업단 홍보 사업), 사업비 430만원 △ 청정에너지 특화 교육 프로그램(특화 교과과정 개발, 국외 연수 지원, 기초 및 전문 능력 인증제 운영, 학생 교육 및 실습활동 지원), 사업비 3246만원 △ 산·학·연·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현장실습 운영, 공개강좌 및 특강, 청정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재교육, 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목적의 산학 공동연구 지원, 청정에너지 캠프 운영) 사업비 147만원 △ 대학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청정에너지 관련 대학간 연계 교육운영, 교수학습 프로그램, 청정에너지 관련 공동실습실 운영, 청정에너지 집중 심화교육 공동운영) 사업비 80만원이다.

각 사업들은 1차에서 5차까지 단계별

로 각각 투자되는 사업비로 향후 5년간 추진될 전망이다.

## ▲ 사업성과

제주대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추진될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의 기대효과는 크게 대학발전의 기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 등으로 나뉜다.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한 청정에너지 특성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장기간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신산업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취업률을 제고하며,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해 지방 거점대학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가 청정에너지 보급 기지로서의 위상 확보 및 이미지 확대를 통한 지역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제주지역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사업에 따른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대학전체 △교원확보를 현재 70.5%에서 72% △학생증원을 현재 93.5%에서 95%, △취업률 현재 50.7%에서 55%, ▲사업팀 △교원확보를 현재 66.6%에서 80%, △학생증원을 현재 84.8%에서 100%, △취업률 현재 22.6%에서 33%로 증가 등이다.

송지은 기자 jen8318@ch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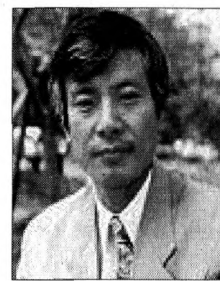
〈편집자 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서 제주대 5개 사업단이 선정돼 연 76억원씩 향후 5년간 38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대형 사업에 선정된 ‘이월대 생물산업 및 친환경 농업생명산업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첨단관광정보시스템 전문인력 양성사업’, ‘친환경 해양산업 뉴프론티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법무서비스 인력양성사업’을 5회에 걸쳐 연차한다.

이번은 네 번째로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 ◆ 인터뷰 - 허종철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 단장



## “교육 부문 힘쏟아 학생 취업 강화”

- 사업 준비는 어떻게 했는가.

“먼저 이 사업이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 청정에너지보다는 대체에너지라고 말해야 옳다. 대체에너지라 함은 아시아 시파 자연환경을 이용한 일종의 미래개발 산업이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성격 때문에 각 국가마다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연구 및 개발을 미공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아직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된 바가 없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 추진위원들은 스스로 발로 뛰어 사업권을 얻어냈다.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과 인

은 태양열과 수소연료전지를 연구하고 배우게 된다. 현재 교과목은 연계전공으로 모든 분야를 학문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추후 분야에 따라 새로운 학과를 구성하는 나노 분야의 불 예정이다.”

- 주목해야 할 사업은.

“추진 사업에서 연구 실적이 가장 뛰어난 분야는 풍력발전분야다. 자연환경이 뒷받침 해준다는 점도 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도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실시하고 있는 행원의 풍력 발전기 15기는 연간 14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한국남부발전(주)의 환경면 풍력발전기 4기도 가동 중이므로 직접적인 연계

## 청정에너지 분야 교과과목 포함

## 각 분야별 세부 심화선택 가능

력을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특징은.

“사업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풍력,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분야는 더 미래적인 개발 분야로 점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사업과의 차별된 특징이라면 가장 먼저 청정에너지 분야를 교과과목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기초과목에서는 모든 분야를 배우고 심화과목에서는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이들때론 기계와 메카트로닉스(생산) 전공은 풍력에 대한 학문을 하고, 청정화학공학전공은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전공

가 가능하다.

때문에 앞으로 인재양성과 취업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도외나 국외에도 많은 인재들을 진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먼저 취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수준 향상에 가장 주력할 것이다. 영어교수는 초빙했고 토의시업을 의무화해 영어실력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연구적으로는 일단 풍력 분야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과 연계해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를 상용화 시켜 제주도에 청정이미지를 고착화 시킬 것이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

## ◆ 취업난 NURI로 탈출하자

## 연구분야 미리 파악해 준비하면 취업 쉬워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은 대체에너지를 연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앞으로 제주대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대체에너지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산·학·연·관을 연계해 직접 사업체에 뛰어들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

먼저 이 사업에 뛰어드는 4개 전공인 기계·에너지, 메카트로닉스(생산), 청정화학공학과는 서로의 학문간 연계를 통해 주력 사업인 풍력과 태양열·태양광, 수소연료전지를 연구하고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의 대상 학과인 기계·에너지생산공학전공이나 청정화학공학과에 있는 학생과 새로 들어올 학생들은 자신이 연구할 분야를 미리 파악하고 숙지해

이와 함께 토의시업을 필수적으로 보게 하면서 외국어장학금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또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해줘 노력하는 학생은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종철(기계에너지생산공학) 교수는 “전공분야관련 인력양성과 영어능력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계획”이라며 “꼭넓은 연구와 능력개발 그리고 해외연수를 위해서는 영어는 필수”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는 성적우수자에 한해 해외 교육기관에 6개월간 단기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그만큼 학과생활이 실무학습 위주로 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CEO 특강을 통한 기업의 채용 요구 사항을 미리 숙지할 수 있게

취업준비를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학문증진을 통해 취업률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이 꾸준히 지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사업이 취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꾸준히 교과과정에 따라 학문에 입하면 취업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허 교수는 “미래산업인 만큼 취업을 접하기는 어려우나 양성되는 인력들은 앞으로 이 분야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양성되는 인력들이 책임과 임무를 다했으면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호근 기자 journalist@cheju.ac.kr

## 04학년도 제2학기 상담·봉사센터 프로그램 이용안내

상담·봉사센터는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대학생활을 보다 유익하고 보람되게 하기 위하여 고민과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각종 상담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봉사체제를 통하여 봉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사회봉사 교과목 및 사회(아라)봉사단 운영 등 국내·외 봉사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 ■ 개인상담

개인상담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민(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성격 및 행동, 인지, 정신건강, 가족, 성 및 이성교제, 학교생활 적응, 종교 등)들을 상담자와 1:1 개별상담을 통하여 대처방법을 탐색해 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학기중 수시, 개인상담실  
■ 상담자 : 박금주, 김미리, 고강호(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

학내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마련과 처리, 이성교제나 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학기중 수시, 성희롱·성폭력상담실  
■ 상담자 : 박금주, 김미리(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 집단상담

8~15명의 구성원이 모여 수용적이고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개방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과정으로서, 동료상담(동료상담 훈련, 리더 슈퍼비전, 집중연수, 리더연수), 현실치료, 스트레스 관리, 가치명료화, 자기성찰, 인지행동, 싸이코 드라마 등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매 학기 실시하며, 주 1회씩 8~10주에 걸쳐 운영됩니다.

## ■ 동료상담 프로그램(P, C, P.)

■ 오리엔테이션 : 9. 13(월) 17:00~18:00, 소회의실  
■ 운영기간 및 장소 : 9. 13(월)~11. 19(금), 제1·2집단상담실, 명상수련실  
■ 강의시간 및 지도(주1회 2시간(8주))  
· 월요일 A팀 16:00~18:00, 김형택(사 회 4년), 김나래(가정관리 4년)  
· 월요일 B팀 16:00~18:00, 김연정(미 술 4년), 우진영(가정관리 4년)  
· 월요일 C팀 18:00~20:00, 이택민(해양토목 4년), 김홍보(해양토목 4년)  
· 화요일 A팀 16:00~18:00, 송현정(가정관리 4년), 김민선(사 회 4년)  
· 화요일 B팀 18:00~20:00, 고선주(생 정 3년), 김석범(사회교육 2년)  
· 수요일 A팀 16:00~18:00, 김연정(정 4년), 장혜린(인문홍보 3년)  
· 수요일 B팀 16:00~18:00, 김연정(정 4년), 장혜린(인문홍보 3년)  
· 목요일 A팀 18:00~20:00, 송정(사회교육 3년), 강광재(국악문 3년)  
· 목요일 B팀 18:00~20:00, 구승미(영어교육 3년)  
■ 수료식 : 11. 19(금) 17:00~19:00, 소회의실

## ■ 동료상담 집중연수

· 심리적 스트레스의 완화  
· 교직원 습관과 행동의 변화  
·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대상 : P, C, P. 프로그램 수료자  
■ 연수기간 및 장소 : 12. 18(토)~19(일),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동료상담 리더연수

· 동료상담 리더 양성과정  
·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하여 동료상담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대상 : P, C, P. 프로그램 수료자  
■ 연수기간 및 장소 : '05. 2. 18(금)~20(일),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현실치료 프로그램

자신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

을 선택하여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9. 16(목)~11. 18(목), 제1집단상담실  
■ 강의시간 : 목요일 18:30~20:30(주1회 2시간(8주))  
■ 강사 : 김경희(탈라임인종학박사)

##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기관리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및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고, 억압된 감정을 정화하며, 비합리적인 행동방향을 정화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효과적 원리와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11. 6(토), 제1집단상담실  
■ 강의시간 : 토요일 10:00~17:00(1회 6시간)

## ■ 자기성장 프로그램

자기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나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함으로써 보다 의미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9. 23(목)~12. 9(목), 제1집단상담실  
■ 강의시간 : 목요일 16:00~18:00(주1회 2시간(10주))  
■ 강사 : 송나리(제주YWCA 여성의반려소장)  
강명재(제주YWCA 여성의반려소장)

## ■ 인지행동 프로그램

인간의 정서나 행동은 외부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개인의 사고나 신념체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비합리적 사고, 자기주입적인 사고를 논박하여 합리적 사고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9. 20(월)~11. 23(월), 제2집단상담실

■ 강의시간 : 월요일 16:00~18:00(주1회 2시간(8주))

■ 강사 : 함미영(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 ■ 가족기능 증진 프로그램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며, 가족기능의 하위요소 7가지를 각각 향상시켜 가족기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영기간 및 장소 : 9. 14(화)~11/30(화), 제1집단상담실  
■ 강의시간 : 화요일 14:00~16:00(주1회 2시간(10주))  
■ 강사 : 정성태(상담·봉사센터 특별연구원)

##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링이란 성인과 청소년이 한성을 이루어 신뢰를 기반으로 1:1 관계를 맺는 것으로 멘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지하고, 가르치며, 멘토는 멘티의 개인적인 후원자, 역할모델, 교사, 코치, 상담자로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로, 계획된 공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기간 및 장소 : 10. 1(금) 13:00~17:00(4시간)  
10. 2(토) 09:00~13:00(4시간)  
10. 8(금) 14:00~16:00(2시간), 소회의실  
■ 활동기간 : 10월~'05. 2월(매주 1~2회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  
■ 슈퍼비전 : 매월 1회(총5회)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이수자는 사회봉사활동 시간 인정  
■ 강사 : 송미경(제주도청소년소녀합창단)

## ◆ 이용안내

■ 위치 : 본관 우체국 앞  
■ 전화 및 E-mail : 사회봉사 / Master(☎ 754-2305, sos@jcss.org)  
■ 홈페이지 : http://www.jcss.org

제주대학교 상담·봉사센터



(064) 754-2275 FAX 756-2204



한국 노숙자 실태

# 여성 노숙자 올들어 31% 급증

## 겨울 문턱 앞뒤킬 노숙자 복지대책 시급

홈리스가 내뿜는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홈리스 인권을 말하던 내가 그 홈리스의 곁을 피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직 무의식 속에는 홈리스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숨어있었나 봅니다. -홈리스(Homeless) 편집인-



심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며 "일주일에서 3천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고 있지만 자금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숙자 중에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이를 도와줄 의료시설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과 관련된 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남기철(동덕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노숙인 복지 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규적인 프로그램으로 재원될 기존의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의 위상과 정착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중 남기철 교수는 "드롭인센터(drop-in center)"의 중요성을 말했다.

본래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인 드롭인센터는 자유롭게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혹은 자유이용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보건, 알콜 및 약물중독, 아동과 청소년, 여성복지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보호센터의 명칭으로 더 알려져 있다. 남기철 교수는 "아직 드롭인센터

가 우리나라에 정착된 지 10년 미만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 상황과 시스템 내에서의 드롭인센터의 역할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가끔적인 소규모 단기보호를 지향하는 형태로 구축하고, 원거리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노숙인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숙인은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주거'를 상실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시각은 밝지 않다. 연말이 되면 흔히 '불우이웃을 도우시다'란 구호를 외치며 사회복지대생들에게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만 노숙자들에게는 쌀쌀한 눈초리를 보낸 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이웃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히 노숙인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돌봐줘야 할 이웃이라는 것이다. 고선주 기자 seints@cheju.ac.kr

장기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가정 불화로 거리에 뛰쳐나온 여성 노숙자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노숙자가 지난해 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2003~2004 노숙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전국 각지의 노숙자 쉼터에서 집계된 여성 노숙자가 지난해에 비해 31%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여성 노숙자를 포함한 노숙자들의 삶과 복지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장은 홈리스 잡지를 통해 노숙자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숙자란 "주거를 상실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정확한 의미는 홈리스(homeless)라며 "거리에서 숙식을 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홈리스 지원 정책의 대상범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9일 복지부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과 비

교해 노숙인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부랑인보호'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로 제34조 제4항 중 '부랑인보호'를 각각 '부랑인·노숙인보호'로 바꿔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됐다. 그러나 아직도 노숙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단체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노숙자 선교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일 목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주일 화, 목, 토요일에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해 점

미레가 보인다-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 면접시, 면접관에게

## 좋은 인상 보여야



▲모 항공사의 면접 모습

회사는 직원 채용시 지원자를 살펴 원하는 인재를 가려낸다. 그리고 그 뽑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며, 회사의 상황이나 경영상태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회사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취업이 순조로울 것이다. 참고로 한화(주)는 토익점수를 기준으로 삼지만 뽑는데 결정적이지 않다. 반면 화점은 아주 중요하다. 눈에 띄게 잘 받은 학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2.5정도도 안 나오는 학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충실히 하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서는 많은 일을 잘 하겠나. 서류전형보다는 면접이 중요한데,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모 단정하고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튀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 면접관 시절, 한 친구가 남자인데 귀걸이를 하고 온 적이 있다. 왜 귀걸이를 하고 왔냐고 묻자, "난 평소 귀걸이를 하는데, 면접이라고 해서 날 속이긴 싫다"고 대답했다. 당당한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뽑지 않았다. 100명 중 10명은 회사에서 이탈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마 그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무난한 사람이 들어와 회사에 잘 적응하길 바란다. 또 "5년 후, 10년 후 모습을 말하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대답으로는 "과장, 또는 차장이 돼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가 적절. "5~6년 정도 회사를 다녀 경

험을 쌓은 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말한 친구들은 절대 안 뽑는다. 요즘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는 추세지만 적어도 틀어쥔 때의 마음가짐은 평생 직장처럼 여기고 일할 사람을 뽑고 싶어한다. 자기소개는 보통 1~2분 정도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 회사와 연관되는 얘기를 하게 좋다.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이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최대한 자신이 회사와 잘 맞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 1차 면접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묻고, 사장·임원들이 많은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가치관을 묻는다. 요즘 같아서는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답은 없지만 가치관이 확고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신문은 잘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에서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우쭐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경우는 뽑힐지 말지, 경제선상에 있는 사람이다. 질문을 안 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다.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인정받은 사람, 질문할 가치도 없는 사람,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 자기소개를 잘 해야 한다. [이대우 한화(주) 인사차장이 발제한 '취업과 직면의 세계'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송수연기자 song@cheju.ac.kr

일주일브리핑

## '북한인권법'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성(性)파라치 제도 도입 물의 경찰은 성매매 범죄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중인 '성(性)파라치 도입 논란' 설문조사에 따르면 6일 현재, 1만8000여명 중 75%에 달하는 네티즌이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삼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등장, 이들이 성매매 현장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것이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사자를 협박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누구라도 경찰수사로 망신을 당할 바에야 큰 돈을 주고서라도 일을 무마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여한 한 네티즌은 "신고자들이 성매매범죄자를 협박할 경우 성매매보다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물게하면 어떨까요?"라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음지에 산재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 범죄의 도입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북한 인권문제 개입

최근 미국 상원은 막대한 규모의 연방예산을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투입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북한내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연간 200만달러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민간인들에게 라디오를 공급, 매일 12시간씩 들을 수 있는 대북 방송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는 최대 2000만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은 인도적 당위성이라는 긍정적인 의의와 대북 압박 수단의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국회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한국근로자 행복지수 세계 10위?

한국무역협회 측은 한국의 근로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지수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적 행복지수 계산방법은 '자녀 2명을 둔 기준 가정이 연소득 5만 유로를 벌었을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비를 뺀 금액'으로 체감행복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근로자의 체감 행복 지수는 오히려 낮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노동기구가 소득안정, 노동시장 안정, 고용보호, 작업안전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조사한 경제안정지수는 90여개 조사대상국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또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 도시생계비는 뉴욕(100)을 기준으로 1위 도쿄(130.7), 2위 런던(119)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104.1로 7위를 차지했다. 송수연기자 song@cheju.ac.kr

# 출판부 신간 도서 안내

사료식물 유전자원·육종기술	지역·해외농업의 발전정책	수산해양학	개정판 사회통계학	중국의 山水水	광학
조남기, 조영일 공저	강경선 저	노홍길, 김동수, 김성현 공저	정대연 저	손오규 저	김두철·유영훈 편저
2004/4×6배판/양장/400면/값 16,000원	2004/신국판/양장/516면/값 14,000원	2004/크라운판/반양장/264면/값 11,000원	2004/4×6배판/반양장/524면/값 15,000원	2004/신국판/반양장/560면/값 12,000원	2004/4×6배판/반양장/228면/값 9,000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생매종 및 재배종 중에서 사료작물로 이용 가치가 매우 높은 종의 지리적 분포, 유전적 특성, 품종 및 계통의 육성, 유전자원 보존 및 육종기술 등을 종합해 정리했다. 본 문헌을 대학생, 대학원생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함으로써 사료식물의 육종기술이 체계화될 수 있고, 또한 이 분야의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저작집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다섯 번째의 것으로 지역농업과 해외농업의 발전문제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지역 농업의 발전을 현재의 화해농업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대전환을, 그리고 소품종·대량생산체계를 경종과 축산이 유기적으로 결합,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산자원 조성이나 관리 및 수산업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산생물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밝혀 수산자원 변동기구의 해명, 어장탐색법의 과학화, 어해황 예보 기술의 정도 향상 등 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과 관련된 해양학의 기초지식, 어장 환경과 어장 형성 기구, 어장환경과 어류의 분포, 등을 위한 위성 정보의 이용 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이 담긴 강의 교재가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 통계적 분석기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학문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실용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분석 수준도 깊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국가자격 사회조사분석사 시험도 신설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통계적 분석기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책은 저자가 1992년에 출간한(사회통계학)을 보완한 개정판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03년 중국에서 1년간 생활하며, 그 곳의 자연과 역사문화유적을 답사하고 일기 형식으로 저술한 산수유기로서 여행기이다. 또 저자는 산수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미학적 근원을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을 통해 본 동양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과 풍속에 대한 평석과 이해 및 감상을 위주로, 전통적 기행문의 아름다운 구성을 시도하였다.	반사와 굴절, 얇은 렌즈 등을 포함하는 기하광학과 간섭과 회절의 특성을 다루는 파동광학 및 양자광학의 기초 분야를 취급하여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광학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 제43회 탐라문화제 전통놀이 한마당 체험



△고래골기(맷돌갈기)



△몰려박 놀이



△도리깨질



△투호놀이

## 전통놀이, 그 신나는 체험 속으로 풍덩~

“할머니 이게 뭐야?”  
“이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물통이야. 표주박으로 물을 떠서 이 안에 담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져오곤 했지.”  
맑고 청량한 날씨가 가을임을 무색케 하는 주말의 오후, 간만의 주말나들이로 ‘탐라문화제’ 행사장을 찾은 원복회(55·제주시 이도1동)씨는 어린 손자 녀석에게 ‘몰려박’을 설명하기에 바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어깨에 메는 손자 녀석을 보니 40년 전 몰려박을 지고 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 잠시 추억에 잠긴다.  
이렇듯 기성세대들에게는 추억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는 경험을 주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체험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열린 제43회 탐라문화제 행사장인 신산공원을 찾았다.  
문화제 체험행사, 전통놀이 한마당 등 갖가지 체험행사로 이뤄진 행사장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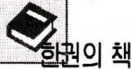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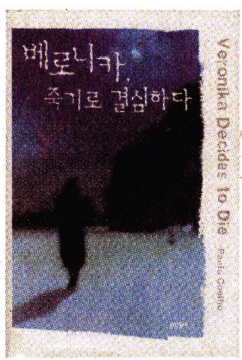
구성돼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했다.  
특히 도리깨질, 고래골기(맷돌갈기), 투호, 몰려박지기 등 제주전통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장에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유난히도 북적였다.  
곡식의 이삭을 거두기 위해 도리깨로 곡식을 두드리는 제주전통의 “도리깨질”은 옛 어른들이 사용하던 길다란 채 모양의 도리깨를 그대로 복원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리깨를 두 손에 꼭 쥐고 엄마처럼 이렇게 둥글게 돌려서 탁 치는 거야.”  
초등학교인 딸에게 도리깨질을 가르치며 손수 모범을 보이는 최은경(33·제주시 노형동)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도리깨로 유채 두드리는 것을 많이 봤다”며 “오늘 처음 해보는 도리깨질에 어린이들이 정말 재밌고 신난다”고 말했다.  
모든 행사에 어머니, 아버지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말겠단 피우던 철부지 자녀

들은 사람스런 제자가 된다.  
“예구 힘들어”  
손잡이를 잡고 맷돌을 돌리는 고사리 손이 힘겨워 지자 엄마가 이를 돕는다.  
“이건 ‘맷돌’이라고 곡식을 가는 데 쓰였던 농기구야. ‘믹서기’ 알지? 옛날 믹서기가 바로 맷돌이란다.”  
행사장에 준비된 썰을 맷돌 구멍에 넣고 돌리자 흰 쌀 가루가 나온다. 큰 알갱이 하나 없이 고르게 갈아진 쌀가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 한다.  
이날 딸과 함께 ‘고래골기’ (맷돌갈기) 놀이를 체험한 양향옥(30·제주시 도남동)씨는 “맷돌갈기를 해보니 어릴 적 맷돌에다 콩을 갈아 콩국수를 만들어주던 어머니의 손맛이 생각난다”며 “그리운 그 맛을 딸 아이와 함께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어린시절을 추억했다.  
궁중에서 여자들이 주로 하던 ‘투호’는 화살을 향아리에 던져놓는 놀이다. 오늘날 변형된 많은 놀이가 있어서 그런지 행사 참

가자들은 곧잘 따라했다.  
팔을 뻗어 향아리에 화살을 연신 집어넣는 윤주필(광양고 2)군은 “오늘 처음으로 투호를 해보았다”고 한다. “통 속안에 무언가를 던져서 골인시키는 놀이가 많아서 어색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필군은 “투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재밌다”고 말했다.  
윤주필 어린이처럼 대부분의 어린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놀이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기심만으로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른과 함께 온 어린이들은 어른의 설명을 통해 체험을 배움으로 이끌고 돌아갔지만 어른과 동행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놀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체험만 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좀 더 체계적인 설명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말로만 들어왔던 우리네 전통문화를 손만 만져보고 직접 참여하는 4일간의 ‘탐라놀이한마당’ 축제는 평소 접할 수 없던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백문이불여일견’이란 옛말처럼 많은 참석자들은 책을 통해 백번 본 것보다 한 번의 체험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문화를 알리는 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 체험행사로 선보인 제주도 놀이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다양한 제주의 놀이가 체험행사로 선보여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여진 체험행사가 ‘도리깨질’과 ‘몰려박지기’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은 “제주전통놀이체험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정작 놀이가 얼마되지 않아 실망했다”는 김모씨(25)의 말처럼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제주도 전

통놀이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했다.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자리가 ‘축제’라는 무대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뤄진다면 좀 더 많은 이들이 제주전통놀이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제주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정미 기자 jung@cheju.ac.kr



“파울로 코엘로 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 “다른 사람이 미쳤으면 나도 미쳐야 한다”

“모든 사람과 닮기를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숲에 똑같은 잎은 단 하나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부인은, 부인이 다르다는 걸 미친 걸로 생각하죠. 여기서(정신병원)는 모두가 다 다르죠. 그래서 부인은 자신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기를 원치 않죠.” 본문 내용 중 정신병원 원장 이고르 박사가 패닉 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마리아에게 다르다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대목이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는 죽음 앞에선 인간의 광기와 생에 대한 열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한 인간의 생에 대한 열정보다는 소위 정신병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상인이라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신병자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자 파울로 코엘로의

생각이 더욱 흥미롭다.  
이 책의 주인공 베로니카는 26살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소위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라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이다. 그런데 왜 베로니카는 죽기로 결심했을까?  
자신의 불안정한 소망보다는 안정된 직업과 적당한 쾌락을 즐기는 베로니카, 그녀는 자신의 미래조차 자신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 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무것도 아니리라 못한,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라고 그녀는 결론 내렸다. 모

험도 꿈도 없는 베로니카는 지리멸렬한 삶을 버리고 결심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죽음의 세계가 아닌 정신병원. 처음 그곳에 입원하게 된 것에 당황하며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쳤다는 것은 정상인들과는 조금 다를 뿐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가 만난 사람 중 제2카는 미쳤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하는 자신을 정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쳤으면 나

도 미친 척을 해야 정상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우리는 집단 또는 사회라는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정신병자와 취급받지 않기 위해 정상인인 척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자질, 본능, 쾌락의 형태, 모험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는 집단적인 행동양식을 강요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사회가 정해 놓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들을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계바늘이

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시계바늘이 오른쪽으로 도는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절제해 왔을 것이다. 자신이 소망하는 직업이 아닌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만 해왔을 것이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결혼할 반려자를 찾아 결혼하고 애 낳고 기르면서 남은 생을 마감할 것이다. 뻔한 레퍼토리 인생. 이런 안정된 삶 속에서 소위 정신병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한층의 광기를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현주 기자 kynikos@cheju.ac.kr

###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는 제주지역 최초로 고등교육의 장(場)으로서 문을 연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간의 교사(校史)와 발전과정을 담은 각종 기록물과 자료를 수집하여 상설 전시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를 사랑하는 동문, 학부모, 교직원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大學史 자료수집 대상〉

【종이물】 간행물, 팸플렛, 학생증, 학위증, 각종 신분증, 상장 등  
【사진 및 미디어자료】 음반, 각종 행사 및 활동사진, 캠퍼스사진, 필름 등  
【기념품 및 비품】 마크(교표), 상패, 문진, 행사기념품, 패너트, 배지 등  
【복식자료】 교복, 체육복, 학군단복 등

제주대학교를 상징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를 망라하여 수집합니다.

자료기증에 관한 문의는 제주대학교 총무과 ☎ 754-2073, 이메일 : asap@cheju.ac.kr로 연락주시요

### 제24회 백록 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학교 개교 제52주년과 언론출판센터의 제주대 신문 창간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4회 백록학술상을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응모자격〉

제주대학교(원) 재학생(박사과정 제외)  
일반논문(A4·15~30매 내외)-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  
〈시상〉  
-학부생 : 당선작 : 총장상 및 부상 50만원  
가작 2편 : 총장상 및 부상 30만원  
-대학원생(박사과정 제외) : 당선작 : 총장상 및 부상 50만원  
가작 2편 : 총장상 및 부상 30만원

#### 〈접수방법〉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제주대신문 편집국 (출력물과 디스켓 동시 제출)  
우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언론출판 센터 제주대신문  
〈접수마감〉  
2004년 12월 4일(토) 13:00까지  
등기우편인 경우 '백록학술상 응모작품' 명기(연락처 반드시 기재)  
〈당선작 발표〉 제주대 신문 2005년 신년호  
〈기타 문의〉 제주대학교 언론출판센터 T 754-2278

제주대학교 언론·출판 센터